



《호소문》
살인까지 유발하는 종교 증오범죄 '강제 개종'은 사라져야 한다!
강제 개종으로 인한 살인 사건,
그 진상을 규명하라!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서 강제 개종으로 인한 인권유린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납치, 감금, 폭행 등 인권유린을 동반한 강제 개종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1,000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호소가 전국에서 들끓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29일 강제 개종을 위해 자녀를 전남 화순의 한 펜션으로 납치해 감금하려던 부모에 의해 구0인(27, 여, 광주)씨가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은 지난 2016년에도 장성의 모 수도원에 감금된 상태로 무려 44일 동안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협회 광주상담소 임 모 전도사 등에 의해 강제 개종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이후 고인은 2017년 6월 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부탁한다는 글을 대통령에게 남긴 바 있다. 이 고인의 요구에 국가의 노력이 있었다면 고인이 두 번째 강제 개종교육에 끌려가지도, 목숨을 잃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에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달 21일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쫓기대회를 개최해 불법적 강제 개종교육의 실태와 강제 개종목사를 규탄하고 구0인 씨를 추모했다. 이후 이 소식이 광주·전남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단순히 종교문제로 다뤄다가 부모가 자녀를 죽인 사건으로 알고 있던 수십만의 국민은 그 내막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고인을 애도하는 추모의 물결이 전국으로 퍼졌고,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대전, 부산, 대구, 전주 등 8개 지역에서 추모식과 아울러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 및 강제 개종목사 처벌'을 촉구하는 대규모 쫓기대회가 펼쳐졌다.

이 소식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 호주, 영국, 프랑스, 중국, 이스라엘, 이집트, 남아공, 뉴질랜드 등 총 21개국에 30개의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이를 외면하고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은 왜곡·편파보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지난달 18일 강제 개종 피해자인 임 모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법적인 강제개종 목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강제개종처벌법을 제정해주세요!**' 라는 글을 올린 후 14만 여명이 동의했지만 4일 만에 무단 삭제됐다. 정부는 합당한 이유도 없이 14만 국민청원을 무단 삭제한 관계자를 밝히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임 씨는 청원글에서 "지인이는 두 번이나 강제 개종목사들에 의해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에 강제납치를 당해야 했고, 강제 개종교육 목사들의 이간질에 의해 눈이 먼 가족들을 보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물론 신체의 자유까지 박탈당한 채 하루 모든 시간을 불법적인 강제 개종행위에 고통을 받으며 한 송이 꽃 같던 대한민국의 청년 지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라며, 대통령에게 "더 이상 지체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강제개종목사들은 부모들을 사주하여 자식들을 납치, 폭행, 감금하게 하고, 자신들은 뒤에서 법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돈을 챙기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라고 탄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국민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인권을 유린당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강제개종 피해자들'의 억울한 눈물을 대통령이 외면한다면 과연 누가 닦아줄 것인가?

우리 강피연은 이제부터 '강제개종 금지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가족들 뒤에 숨어서 불법을 저지르며 살인까지 유발하는 악랄한 강제 개종목사들의 행태를 모든 정부기관과 국내외 종교계와 언론 등에 알릴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그 확실한 진상을 규명하고, 배후에 있는 관련자들을 밝혀내 엄중히 처벌해 달라! 모든 언론 기관은 이 억울한 죽음과 이단상담소의 목회자들이 행하는 불법적 강제 개종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전세계인들이 이를 주목하고 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